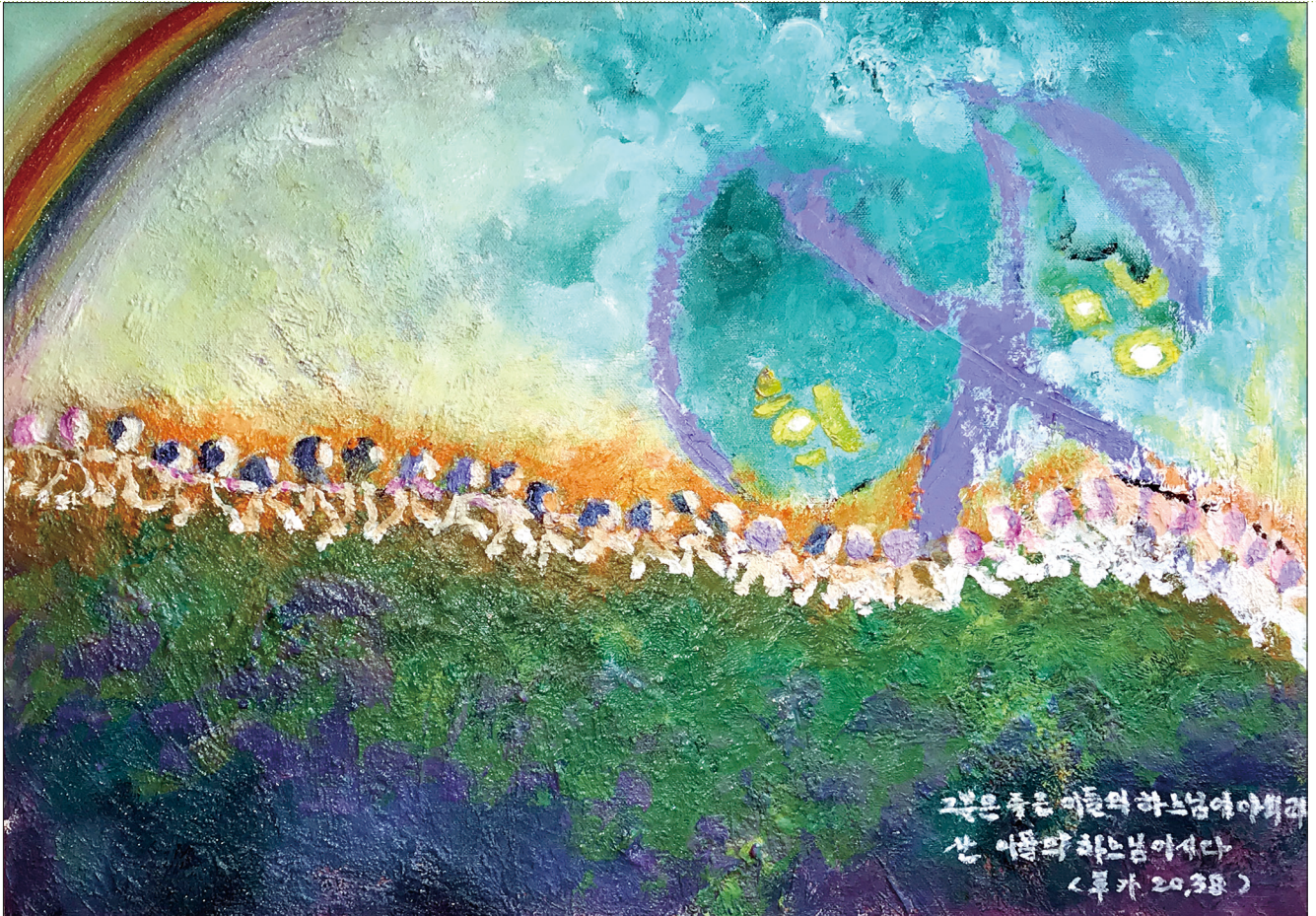




발행 : 천주교부산교구 | 편집 : 전산홍보국 629-8750 (48316)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427번길 39 | jubo@catb.kr | 인쇄 : 주보인쇄사(809-2078~9)



작품 : 안경순 루시아 (반송성당 · 부산가톨릭미술인회)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제1독서 마카베오기 하권 7,1~2.9~14

화답송 시편 17(16), 1.4과 5~6.8과 15 (© 15L 참조)
◎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후렴)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1. 주님,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소서. 제 부르짖음을 귀여겨들으소서. 거짓 없는 입술로 드리는, 제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

2. 계명의 길 곳곳이 견고, 당신의 길에서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이 응답해 주시니,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주소서. ◎

3.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하소서.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소서. 저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옵고,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리이다. ◎

제2독서 테살로니카 2서 2,16~3,5

복음 환호송 묵시 1,5.6 참조

◎ 알렐루야.
죽은 이들의 말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하기를 비나이다. 아멘. ◎

복음 루카 20,27~38

영성체송 시편 23(22),1~2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줄탁동시 (啍啄同時)

요즘 한국교회 안에 떠오른 화두가 “함께 걷어가는 교회 - 공동합의성”인가 봅니다. 서울대교구를 비롯하여 부산교구에서도 평신도 아카데미를 통해 ‘공동합의성’에 대한 논의를 지난 10월에 가졌습니다. 염려컨대 천명 이상이 참석한 자리가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자리가 아닐길 바랍니다. 논의의 자리가 결과물에 대한 실천이 따라가는 출발점이 된다면 더 바랄 바가 없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을 실현하는데 벌써 50년을 훌쩍 넘겨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실현시켜주겠지 하며 기대만 하고 살아온 세월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봅니다. 그러나 혼자서의 실천으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는 거대한 현실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공의회 이후 지나온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야 수면 위로 떠오른

화두입니다.

‘평신도 주일’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새겨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에 유례없는 ‘평신도들에 의해 설립된 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초기 신자들은 단지 학문적인 영역에서 접근했다가 그 학문을 실천의 영역으로 옮겼습니다. 공부하여 습득한 지식을 생활로 살아가는 것이 실천입니다. 신앙의 실천은 하느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고, 그 열망은 순교로 결실을 맺은 슬프지만 영광스러운 ‘하느님의 일’입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지만, 실질적으로 인간에 의해 운영되는 하나의 보이는 체제이기도 합니다. 그 체제에는 질서가 있고, 서열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 같은 신자이지만 전문성(?)을 가진 신자와 비전문성(?)을 가진 신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성직자, 평신도로 말하고

있으나 언제 그 구별에 괴리감이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만치 떨어져 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냥 함께하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공동체라는 우리를 서로 바라보며 기쁨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 닭도 밖에서 열심히 알을 쪼아 준다는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유난히 생각납니다. 평신도와 성직자가 상호 보완하여 서로의 빈틈을 메울 수 있도록 더욱 지혜를 발휘하고 노력할 때입니다. 신앙인의 이상인 ‘하느님 나라’는 평신도와 성직자, 모두가 함께할 때 실현되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겨봅니다.



김영곤
시몬 신부
구포성당 주임



태풍에 낙과한 배로
즙을 냈다는 과수원 친구,
성하지 않은 과일이었을 텐데도
다디단 배즙을 보니
문득, 생채기 난 우리 삶도
추수 날 그분 앞에서
행여 향긋할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글. 장정에 마리아고레피 시인(만덕성당)
그림. 최창임 프란치스카 화가(성가정성당)

cpbc 부산가톨릭평화방송

부산 FM 울산 FM 녹산 FM
101.1MHz 94.3 MHz 101.5MHz

오늘의 강론 월~토 06:50

11.11(월)~12(화)
김영곤 신부(구포성당 주임)
11.13(수)~16(토)
이송섭 신부(동래성당 보좌)

사랑이 있는 세상

월~목 12:15~14:00

진행 : 김현지 리나

11.12(화) 함께하는 여정

출연 : 율하성당 선교분과

11.14(목) 퀴즈콩트, 성경에서 온 그대

출연 : 정철용 신부(우동성당 부주임),
임영천 헬레나

*스페셜 : 11/16(토) 12:00~13:00

희망을 노래합니다

아들 진환 씨(가명)는 아버지 상민 씨(가명)를 생각하면 '목자'가 떠오른다고 했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고, 그 양을 되찾았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목자의 모습(마태 18.12~14 참조) 말입니다. 늘 고통받는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아버지가 질병으로 인해 목자가 찾아주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한 마리의 양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한창 사업에 힘을 쏟던 상민 씨는 2001년 쓸개 제거 수술 후 나타난 저혈당 증세로 자주 고통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괜찮아지겠지' 하며 차일피일 치료를 미루다가 그러던 어느 날, 출장을 다녀오던 중 급성폐렴으로 쓰러져 13일간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회복했지만, 저혈당 쇼크로 인한 팔다리 마비로 더는 혼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상민 씨는 사업을 그만두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고열과 발작, 마비로 인해 입원과 퇴원만 수없이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투병 생활이 길어지는 만큼 몸은 점점 수척해져만 갔고, 뇌 손상으로 기억력까지 감퇴되면서 이제는 자신이 왜 아픈지조차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아내마저 오랜 병시중에 지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곁을 지키는 건 이제 아들 진환 씨뿐입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들 진환 씨는 화가 납니다. 이웃을 돌보는 만큼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돌보았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아버지를 제대로 간호할 수 없는 자신입니다.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급여도 가불받고, 치료를 위해 빚도 내어 성심껏 돌보았음에도 병이 호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의

사는 그에게 아버지의 임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는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애씁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입니다. 5살 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낼 수 없을 만큼 자신의 살림살이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해매고 있는 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목자처럼, 애타는 자신과 아버지의 목소리에 주님께서 귀 기울여주시기를 말입니다. 그 기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람들 또한 귀 기울인다면 분명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 사회사목국(051-516-0815)

도움 주실 분

신협 131-016-582122

부산은행 101-2017-0218-01

예금주 : 천주교부산교구



"나의 마지막 수트" - 잊는다는 것과 잊혀진다는 것은

■ 감독 : 파블로 솔라르스
■ 2017년작

누군가를 잊는다는 것, 누군가에게서 잊혀진다는 것은 기억의 창고 문이 닫혀있는 것이다. 그 문을 열기까지는 오래 걸릴 수도,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다행이다. 짐을 정리하다 발견한 수트 한 벌. 그것은 70년 전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친구에게 줄 선물이었다. 유대계 재단사인 아브라함은 폴란드에서 아르헨티나로 탈출해 온 홀로코스트 생존자다. 자신의 불편한 다리를 '추레스'라 부르며 오랜 친구처럼 여긴다.

영화는 아브라함이 친구에게 줄 수트 한 벌을 들고 절뚝이며 폴란드로 향하는 고단한 여정을 담았다. 여행길에 떠오르는, 나치의 잔혹함으로 짓밟힌 청춘과 처참한 가족들의 죽음은 고

통과 트라우마를 데려오지만, 그를 살렸던 친구처럼 아브라함의 '추레스'가 되어 주는 따뜻한 이들이 있다. "독일 땅을 절대 밟지 않겠다."는 그에게 자신의 옷을 깔아주고 발을 던게 하는 독일인 인류학자. 선대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그녀의 진심이 아브라함의 얼음장 같은 증오를 녹인다.

그는 자신을 간호하던 간호사의 동행으로 도착지까지 가며 점차 자신이 회복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서로 닮은 모습으로 늙은 친구. 두 친구의 깊은 포옹과 어깨를 감싸며 내려놓는 한 마디는 모두에게 차려주는 희망의 국밥 한 그릇이다.

감독은 순탄치 않은 여정의 끝자락에 따뜻한 인간애로 관계회복의 메시지를 내려놓는다. 그리고 모두에게 가만히 묻는 것 같다. 누군가에게서 내가 잊혀지듯이 나도 소중한 무엇을 문이 닫힌 창고 속에 넣어두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 이미영 체칠리아 (가톨릭영화제 프로그래머 cecil-e@hanmail.net)





"연도 (煉禱)가 나면"



1. 가족의 임종을 준비하면서

- 첫째, 경건하게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마음 준비를 하고, 늦지 않게 사제에게 병자성사를 청합니다.
- 둘째, 본당 연도회장(선종봉사자)과 연락하여 미리 장례절차를 상의합니다.



2. 장례가 났을 때

가. 유족

- 첫째, 우선 본당사무실이나 연도회장(선종봉사자)에게 사망사실을 알립니다.
 - 둘째, 연도회장(선종봉사자)과 장례절차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 장례절차와 관련된 내용이란,
- 장례식장, 장법(葬法, 매장 또는 화장) 및 장례용품 결정
 - 장례예식(입관 및 출관, 사도예절 혹은 장례미사, 화장 예약)에 대한 일정 및 방법 결정
 - 장례 후 고인을 기억하는 방법(삼우미사를 비롯한 미사 봉헌 등)
- 등을 말합니다.

나. 본당 신자

- 본당사무실을 통해 연도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 첫째, 구역 혹은 단체별로 소속된 신자들과 연락하고, 적어도 한번은 빈소를 방문하여 위령기도(연도)를 바치도록 합니다.
 - 둘째, 장례미사를 참례하고, 가능하다면 묘지까지 유족을 도와 함께 동행합니다.(특히, 망인이나 유족이 속한 구역, 반, 신심단체 회원, 연도회회원은 꼭)



3. 알아들 사항

가. 천주교 묘지(양산 하늘공원) 안장 자격

- 대부분의 교구에는 교구가 관리하는 천주교 묘지가 있고, 매일 미사를 거행합니다. (우리 교구는 내년부터 미사를 주 1회에서 매일 거행할 예정입니다.)
- 소속교구에 교적을 둔 신자는 누구나 안장됩니다. (대세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의식이 온전할 때 세례를 받으시도록 준비합니다. 부부, 가족묘는 예외)

나. 일반 상조회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당마다 연도회(선종봉사회)가 있습니다. 연도회는 본당 신자들을 위해 장례와 관련된 모든 예식을 천주교 신앙의 방식으로 거행되도록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들은 따로 일반 상조회에 따로 가입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녀분들에게도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미 가입하셨더라도, 가족이 임종했을 때는 상조회보다 연도회에 먼저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다. 장의차량 및 용품 사용

교구 사회사목국에서 장례차량 뿐 아니라 장례에 사용되는 모든 용품을 시중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양심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수익금은 사회사목 복지사업에 쓰입니다. 연도회를 통해 믿고 쓰시면 됩니다.

※ **산골(散骨)**: 죽은 이의 시신을 화장한 후 특정한 장소에 뿌리는 행위는 교회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죽은 이들의 부활을 믿고 있는 신자들이 인간을 이루는 한 부분인 육신의 존엄함을 훼손시키지 않고, 또 죽은 이를 기억하고 기도 중에 일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합법적 이유로 시신의 화장을 선택한 경우, 세상을 떠난 신자의 유골은 거룩한 장소, 곧 묘지, 또는 어떤 경우에 교회나 이를 목적으로 마련되어 교회의 관할 권위가 지정한 장소에 보존되어야 한다”(교황청 훈령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기 위하여」 5항)

※ **수목장(樹木葬)**: 화장한 유골을 함에 담아 보관하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표식이나 비석을 세우는 방식으로 허락됩니다. 역시 산골의 형태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49재미사(?)**: 49재는 원래 불교에서 죽은 이가 다음 생애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비는 제사의식인데, 이 관념으로 49일 동안 미사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천주교의 방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일수가 아니라 죽은 이를 기리는 사람들의 정성이겠지요. 본당신부님과 날짜나 방법 등을 잘 상의하시면 됩니다.

“연도가 나면”, 우리 천주교 신자들에게는 ‘형제의 죽음에 대한 배려’를 통해 실생활에서 우리 신앙을 ‘마음에 새기고’,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적극적으로 동참하셔서 신앙의 단맛을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주변 신자분들에게도 주보 내용을 꼭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교구 사회사목국 선종사업부



위령의 날 미사



하늘공원



용호동



경주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은 죽은 모든 이, 특히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다. 이에 우리 교구에서도 교구 인근 묘지 5

곳(양산, 용호동, 석계, 삼덕, 경주)에서 지난 11월 2일(토) 오전 11시에 같은 시각 미사를 각각 봉헌했다. 양산 천주교 공원묘지(하늘공원)에서 미사를 주례한 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강론을 통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두렵고, 떨림이 없도록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준비를 잘 하자.”고 말했다.



청년 참행복 축제

지난 10월 27일(일) 양산 하늘공원, 청소년캠프장 일대에서 ‘제5회 청년 참행복 축제’가 교구 청년 3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축제는 미사 봉헌, 지구별 위령 기도, 성직자 묘지 참배 등 위령성월을 맞아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청소년캠프장으로 자리를 옮겨 식사 나눔, 찬양 콘서트가 있었다. 특별히 이날 판매한 음료 수익금과 미사 봉헌금은 물질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교구 사회사목국을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문재인 디모테오 대통령 모친 故 강한옥 데레사 장례미사



10월 31일(목) 10:30 주교좌 남천성당

본당의 날, 축하합니다



금정

10월 20일(일) 부산가톨릭대학교
주임 : 주영돈 신부, 회장 : 이준녕 사도요한



대천

10월 20일(일)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주임 : 이강영 신부, 회장 : 박원곤 빈첸시오



명촌

10월 20일(일) 본당
주임 : 조성제 신부, 회장 : 여명환 비리버



온천

10월 20일(일) 본당
주임 : 신기현 신부, 회장 : 박순호 프란치스코



장유대천

10월 20일(일) 함양초등학교
주임 : 강지원 신부, 회장 : 장식 라파엘



태종대

10월 20일(일) 한티성지 / 주임 : 신문갑 신부,
변성수 신부, 회장 : 김건우 베드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부산면허강학회 일반 신자들을 위한 간추린 한국천주교회사 특강
· 11.16(토) 13:00~17:00 · 금정구 오륜대로 235-13 (마을버스 5번 오륜분동 김민정 갤러리 뒤)
문의: 010-4150-6930 * 비회원 대한영

한국순교복자수녀회부산면허강학회 일반 신자들과 함께하는 성지순례
· 11.23(토) 당일코스 (08:30 교대 앞에서 승차)
· 대구 신나무골 성지 일대
문의: 010-4150-6930 * 비회원 대한영

제33회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마리아수녀회 자선대바자회
· 11.23(토) 09:00~19:00, 24(일) 09:00~17:00
· 마리아수녀회내 가족센터, 놀이터
아트마켓, 푸드트럭, 의류, 문구류, 주방용품, 먹거리, 농산물 등 / 문의: 250-5406~10

향심기도 하루피정
· 11.24(일) 10:30~16:00 · 새 예루살렘
강사: 김경순 수녀, 왕영수 신부
참여비: 1만원(중식 포함) / 신청: 11.20(수)까지
문의: 010-5488-1239, 010-3834-4997

티없으신마리아성심 재속3회 지원자 모집
첫모임: 12.9(월) 09:30 마리아피정센터
대상: 봉헌생활을 원하는 65세이하 신자
준비물: 교적,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사진
문의: 010-6711-4819(티없으신마리아성심수녀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 매주 토 14:00~일 14:00
· 경남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내용: 유덕현 아베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문의: 010-2816-1986

2020년 가르멜 재속회원 모집
대상: 견진 받은 만 50세 이하 신자
첫모임: 12.8(일), 9(월), 10(화) 중 택1
문의: 010-5554-1695(일요팀), 010-6677-4032(일요팀), 010-3955-0890(화요팀)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피정: 12.6(금)~14(토), 1.10(금)~18(토)
송년피정: 12.27(금)~29(일)
문의: 010-3340-0201(형성 도미니코피정의집)

한국성모의자애수녀회 <조각보> 모임
· 매일 셋째 일 16:00 · 대구 계산서원
문의: 010-2353-6219, (054)976-6219
http://smm.or.kr

재속전교가르멜회 회원 모집
대상: 전교가르멜수녀회의 은사에 따라 관상과 활동으로 복음적 삶을 살고자하는 평신도
문의: 010-2574-2656(일반인반), 010-2642-2556(직장인반)

수도자들과 함께하는 성탄 전례피정
· 12.23(월) 16:30~25(수) 13:30
· 성 베네딕도 왜관 피정의집
참가비: 19만원(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9877-4739

문산 예수마음피정의집
예수마음기도영성수련(권민자 수녀)
1박2일 피정: 11.16~17, 12.7~8
3박4일 피정: 11.21~24, 12.19~22
8박9일 피정: 12.26~1.3, 1.28~2.5(신학생)
40일 피정: 12.13~1.21, 4.14~5.22
문의: 010-4906-5722, (031)953-6932

제주면허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 가능)
· 11.24~27(추자도), 12.2~4, 12.6~8, 12.14~17(추자도), 1.4~6(한라산), 1.13~15
연말연시: 12.29~1.1(일몰, 일출, 한라산눈꽃산행)
문의: (02)773-1463, (064)756-6009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대상: 세례받은 평신도와 수도자(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원서접수: 11.11(월)~2.7(금) 우편신청가능
홈페이지: ci.catholic.ac.kr(원서다운가능)
문의: (02)745-8339

제주 성지순례 모집
· 12.17~19, 2.25~27, 3.20~22
· 제주 성지 7곳(성지 해설)
(해외순례: 3.2(월)~13(금) 그리스, 터키)
문의: (064)805-9689(가톨릭사회경제연합)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수시2차 모집
원서접수: 11.6(수)~20(수)
입학문의: (054)851-3021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2020학년도 전기2차 신입생 모집
모집: 석사과정(5학기) - 오르간, 작곡(CCM작곡 포함), 합창지휘 / 콘서바토리카정(4학기) - 오르간, 작곡, 합창지휘, CCM, 피아노, 성악, 관현악
원서접수: 12.2(월)~13(금) 09:00~18:00
·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충정로역, 서울역 하차)
입학전형일: 1.10(금) / 문의: (02)393-2213~5, songsin.catholic.ac.kr/music

2020년 살레시오여름신앙학교
접수: 1.2(목) 09:00부터 선착순 마감 250명
대상: 중고등부 4차, 초등부 4차
일정: 광주광역시청소녀수련원 홈페이지 참고
문의: (062)373-0942, 010-7412-0942

2020 겨울방학 필리핀 영어캠프 모집
· 1.4(토)~2.16(일) 6주
· 필리핀 광산한 마리아의 아들 수도원
대상: 초4~중2(50명 모집) / 비용: 420만원
문의: (031)207-4982, 010-4442-4982
주최: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블로그: blog.naver.com/cficengcamp

행복나눔 심리상담실 (명칭 및 이전) 안내
상담: 월~금 10:00~16:30(명령역 2번 출구)
내방상담: 신자, 타종교인 및 지역민
청소년 진로 및 심리상담: 토 10:00~16:00
영적인 문제 및 고해상담: 조육진 신부
대표: 김정애 및 전문상담사
행복나눔의 전화: 463-7866

수도회 성소 모임 및 피정	일시	장소	문의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11.16(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수시로 가능	부산 오륜대 본원	010-9199-4995
올리베타노성베네딕도수도회	수시모집	경남 고성 수도원	010-8798-2986

부산가톨릭대학교
CATHOLIC UNIVERSITY OF PUSAN
기본이 충실한 대학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020학년도 1학기 프로그램 강사 모집
접수기간: 11월 29일(금)까지
홈페이지: <https://edu.cup.ac.kr>
문의: 510-0951~3

부산성모병원
2019년 알레르기 건강강좌
일시 및 장소 / 11.13(수) 14:00 4층 베네딕도 홀
*사전 예약자에 한해 알레르기 피부 반응 검사 및 폐기능 검사 무료
문의: 933-7988(소아청소년과), 933-7210(이비인후과), 933-7242(호흡기내과)
건강한 삶, 행복한 삶. 부산성모병원이 함께합니다.

가톨릭선영 복음 문화 나눔 행복 한 세상
▶ 무료영화상영 ▶ 가톨릭선영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곱 (바티칸이 선정한 가장 위대한 영화 '바티칸 시리즈')
일시: 11.18(월) 19:00
장소: 가톨릭선영 소극장 (인생극장 남만실버관)
18:00 후원 감사 미사(센터 경당) / 다과 / 영화 관람
문의: 462-1870 / www.bccenter.or.kr

'옥에 티'를 찾습니다! 주보에서 오·탈자를 발견하시면 카톡 플러스친구 '가톨릭부산', 이메일로 알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p>장정애 행복디자이너 동국주단 최상희(안나) 장정애(요안나) (본점) 부산진시장 (지점) 자성대 서문 입구 997-0707, 010-9243-5776</p> <p>자식의 입장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산모라 시티요양병원 뇌졸중·치매·통증치료 간병치료, 양한방 협진 연선본원 867-3171 최경순(엘리사벳) 모라본원 317-0080 허선희(율리안나)</p>	<p>임플란트, 심미보철, 교정치료 성모치과 원장: 송치원(라우렌시오) 633-8228, 634-8228 지하철 1호선 범일동역 1번 출구 50m</p> <p>동래 참사랑요양병원 뇌졸중, 통증 재활 치료, 척추 손상 치료, 중풍, 간병 치료, 양·한방 협진 동래: 553-0050 추홍수(야고보) 광안: 751-1515 김명희(야베스)</p>	<p>동래교차로(수안동) 독일보청기 청력검사, 난청유형별맞춤치료, 정부지원 보조금상담, 교무특별발원, 즉석 A/S 방(아브라함) 송(아가다) 555-5777 동래구 동원대로 229, 수안동 7번출구 앞 2층</p> <p>가톨릭신문 투어 1/8 터키, 그리스 13일 399만원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원 1/28 유럽 성모발원지 13일 375만원 02-2281-9070</p>	<p>갑상선·당뇨·고혈압·골다공증 김용기내과의원 [충무동 구, 김동수 내과] 원장: 김용기(T. 아퀴나스) 전 부산의대 학장 외 내과전문의 8명 상담 및 예약 245-7100</p> <p>박숙현 정신건강의학과의원 공황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매, 횡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숙현 (에스텔) 의학박사 611-3339 남천 지하철역 3번 출구, 대남빌딩 5층</p>	<p>50년 전통 명신당 목주반지, 귀금속 예물도매 전문 반광옥(바오로) 김영란(제노베파) 010-3599-7885 646-7885 범일역 1번출구 진시장 방면 약 50미터 거리</p> <p>내일N성형외과 최수중(루카) 전. 부산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과장 / 교수 눈, 코, 윤곽, 가슴, 지방성형, 보톡스, 필러, 레이저 상담 및 예약 231-8088 부산시 서구부대로9(야영병원 2층) / 서구청 옆</p>
--	---	--	--	--